

미성년자 고용 윤곽강요 업주
보듬기구형 파기 : 징역형 선고

서울지법

서울지법 金同煥판사는 23일 미성년자를 절대부로 고공, 유박행위를 시킨 혐의로 벌금 5백만원의 약 시키소했다가 「죄질이 나쁘다」 이유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李澤浩피고인에 (37)에게 중송영건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반죄법을 「진행유예기간동안 재법할 죄의로 약시키소했다.」